

유흥업소 불황이 부른 살인

광주서부경찰, 빛독촉 후배 흉기 살해 40대 구속

상무·첨단·용봉지구 유흥가 경제난에 운영난

‘불야성’을 이루던 용봉·상무·첨단 지구 등 광주의 대표적인 유흥가들도 경제난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불황의 그림자가 절로 드리워지고 있다.

유흥업소 10곳 중 7곳 정도가 폐업 지경에 이르면서 업주들이 운영난에 허덕임은 물론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기야 대형 유흥주점 업주가 영업 부진으로 죽어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

건이 발생했다.

◇유흥업소 업주, 흉기 휠들려=광주서부경찰은 28일, 알고 지내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정모(4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삼부지구에 있는 자신의 K유흥업소에서 이모(3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년 전 삼부지구에 유흥업소를 차린 뒤 2008년부터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일수로 500~1000만원을 벌렸다가 5%의 이자를 더해 갚는 채무·채권자로 발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금까지 거래한 액수만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 부진이 계속되며 급기

야 최근 3개월간 월 1000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정씨는 벼랑으로 내몰리게 됐다. 정씨는 13개월 기준으로 1~2개 월에는 손

님이 없어 텅텅 비는 날이 많았다고

정씨는 경찰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벌리려 만난 이씨가 ‘갚지도 못할 거면서 왜 돈을 벌려달라고 하냐?’고 자존심을 긁어 핫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6일 새벽 6시께 가족의 권유로 자수했다.

◇룸살롱 대신 노래방=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에서 영업중인 317곳의 유흥주점 중 60%에 달하는 191개가 치평동(삼부지구)에 밀집해 있다.

또 광산구(229곳)에는 월계·쌍암동(첨단지구)에 72%에 이르는 165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 때 이미 2억여 원을 정씨에게 빌려준 이씨는 매일 같이 유흥업소를 찾아 정씨를 독촉했고, 급기야 건물주도 “25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면도소송(임대료 연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정씨를 압박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벌리려 만난 이씨가 ‘갚지도 못할 거면서 왜 돈을 벌려달라고 하냐?’고 자존심을 긁어 핫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6일 새벽 6시께 가족의 권유로 자수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층은 “광주 유흥주점 중 70%는 현상 유지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불황이 깊어지면서 손님들이 술을 팔거나 도우미가 있는 불법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선호한다”고 했다.

고관진 광주시지회 회장은 “최근 불법영업을 하는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이 성행하면서 삼부지구의 경우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임대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뇌물’ 모강인 전 해경청장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경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2500만원, 벌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폭약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받은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80)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신씨는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딸바보’를 위한 경찰의 선물

목포서 정광평 경사

“4살 아이 훈자들 수 없어”

수배자 별금 대신 내줘

듣고 자비로 30만원을 대신 납부해 수배가 해제되도록 했다.

정 경사는 또 “나머지는 직장을 구해 반드시 내리”고 다행였다. 정 경사는 “수배자와 함께 아이를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니”면서 “신씨가 건강하게 자녀를 잘 키우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갈 처지에 놓인 수배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정 경사는 비좁은 방 한 쪽에 있는 4살 딸을 가리키며 “내가 없으면 딸을 누가 둘보느냐”는 신씨의 울먹거림을 지나칠 수 없었다.

신씨는 정 경사에게 “6년간 동거한 부인은 집을 나갔고 직장을 구하

려 해도 밤늦게까지 4살 난 딸아이를 돌봐줄 어린이집이 없어 별금(100만원)을 넣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정 경사는 수배관서인 광주지검 목포지청 집행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별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수배가 해제되고 나머지

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답을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전남 54곳 불나도 소방차 못간다

주거지역·시장 포함…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

광주·전남지역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이 5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54개 구간은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17개 구간 2km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전남 32개 구간 12.7km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구간이 주거 지역인데다, 시장 등이 있는 상가지역도 있어 화재 진압이 늦어질 경우 차량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소방방재국은 유사시 피해 확대가 되지 않도록 소방도로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경찰 ‘이동식 진술실’

성폭력 피해자 방문 조사

전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처음으로 ‘찾아가는 진술녹화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진술녹화실’은 4000만원

을 들여 25인승 버스를 개조해 버스 안에 피해조사실·모니터실·쉼터·녹화장비 등을 갖췄다.

박덕흠 의원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안 해상에서 예인선이 침몰, 선원 3명이 실종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7일 밤 11시 36분께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쪽 2km 해상에서 완도선적 72.2t 예인선 102 신한호(선장 김종태·58)가 침몰해 선장 김씨, 기관장 김정남(63)씨, 선원 김인창(66)씨 등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진도 서망항에서 목포항으로 항해 중인 신호는 토사를 실은 부선(금산 3001호)과 연결한 줄이 끊기면서 침몰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예인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 9·7, 헬기 1대를 급파해 조명탄을 쏘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 해상에서 예인선이 침몰, 선원 3명이 실종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7일 밤 11시 36분께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쪽 2km 해상에서 완도선적 72.2t 예인선 102 신한호(선장 김종태·58)가 침몰해 선장 김씨, 기관장 김정남(63)씨, 선원 김인창(66)씨 등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진도 서망항에서 목포항으로 항해 중인 신호는 토사를 실은 부선(금산 3001호)과 연결한 줄이 끊기면서 침몰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예인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 9·7, 헬기 1대를 급파해 조명탄을 쏘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 해상에서 예인선이 침몰, 선원 3명이 실종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7일 밤 11시 36분께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쪽 2km 해상에서 완도선적 72.2t 예인선 102 신한호(선장 김종태·58)가 침몰해 선장 김씨, 기관장 김정남(63)씨, 선원 김인창(66)씨 등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진도 서망항에서 목포항으로 항해 중인 신호는 토사를 실은 부선(금산 3001호)과 연결한 줄이 끊기면서 침몰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예인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 9·7, 헬기 1대를 급파해 조명탄을 쏘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 해상에서 예인선이 침몰, 선원 3명이 실종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7일 밤 11시 36분께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쪽 2km 해상에서 완도선적 72.2t 예인선 102 신한호(선장 김종태·58)가 침몰해 선장 김씨, 기관장 김정남(63)씨, 선원 김인창(66)씨 등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진도 서망항에서 목포항으로 항해 중인 신호는 토사를 실은 부선(금산 3001호)과 연결한 줄이 끊기면서 침몰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예인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 9·7, 헬기 1대를 급파해 조명탄을 쏘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 해상에서 예인선이 침몰, 선원 3명이 실종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7일 밤 11시 36분께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쪽 2km 해상에서 완도선적 72.2t 예인선 102 신한호(선장 김종태·58)가 침몰해 선장 김씨, 기관장 김정남(63)씨, 선원 김인창(66)씨 등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진도 서망항에서 목포항으로 항해 중인 신호는 토사를 실은 부선(금산 3001호)과 연결한 줄이 끊기면서 침몰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예인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 9·7, 헬기 1대를 급파해 조명탄을 쏘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 해상에서 예인선이 침몰, 선원 3명이 실종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7일 밤 11시 36분께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쪽 2km 해상에서 완도선적 72.2t 예인선 102 신한호(선장 김종태·58)가 침몰해 선장 김씨, 기관장 김정남(63)씨, 선원 김인창(66)씨 등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진도 서망항에서 목포항으로 항해 중인 신호는 토사를 실은 부선(금산 3001호)과 연결한 줄이 끊기면서 침몰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예인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 9·7, 헬기 1대를 급파해 조명탄을 쏘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 해상에서 예인선이 침몰, 선원 3명이 실종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7일 밤 11시 36분께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쪽 2km 해상에서 완도선적 72.2t 예인선 102 신한호(선장 김종태·58)가 침몰해 선장 김씨, 기관장 김정남(63)씨, 선원 김인창(66)씨 등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진도 서망항에서 목포항으로 항해 중인 신호는 토사를 실은 부선(금산 3001호)과 연결한 줄이 끊기면서 침몰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예인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 9·7, 헬기 1대를 급파해 조명탄을 쏘며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 해상에서 예인선이 침몰, 선원 3명이 실종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7일 밤 11시 36분께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남쪽 2km 해상에서 완도선적 72.2t 예인선 102 신한호(선장